전국 애도 물결…권여사 "다 놓으시고 편히 가시라"

한나라 지도부 봉하마을 조문 퇴짜

김정일 위원장 "심심한 애도" 조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흘째인 25일에도 초여름의 무더위속에서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김해 봉하마을은 물론 서울 7곳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분향소 60여 곳이 차려지고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분향소도 마련되면서 조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문객들은 뙤약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속에도 기꺼이 분향을 위해 수십m씩 줄을 서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휠체어 탄 채 입관식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25일 새벽 봉하 마을회관에서 열린 고인의 입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벽 1시29분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염이 시작됐고, 권 여사는 염이 끝날 때쯤인 새벽 2시께 마을회관을 찾았다.

힘이 없어 보이는 듯 약간 고개를 숙인 채 휠체어에 앉은 권 여사는 검은색 상의에 회색 바지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충격이 컸던 탓인지 권 여사의 얼굴은 예상했던 대로 무척 수척해진 상태였다.

권 여사는 지난 23일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을 확인한 뒤 실신했었고, 현재까지 식사는 물론 물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권 여사는 입관식에 참석해 상복으로 갈아입었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고인이 된 노 전 대통령의 첫 제사를 지냈다.

입관식을 직접 지켜 본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주지인 정우 스님은 "권양숙 여사께서 노 전 대통령께서 유서에 남기신 것처럼 '다놓으시고 편히 가시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하동으로 돌아가라" 폭언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가 마련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분향소 조문을 제지당했다.

조문에는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송광호 박재순 최고위원과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 조윤선 대변인, 김태호 경남지사와 당직자 등 50여명이 동행했다.

박 대표 일행을 태운 버스가 낮 12시27분께 현지에 도착해 봉하마을로 향했으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들을 막아섰고, 이어 박 대표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하며 "박 대표는 봉하가 아닌 하동으로 가라,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고 건 前국무총리 조문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고 건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안내로 분향소를 찾아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노 전 대통령과 고 전 총리는 지난 2006년 5월 고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약 5년간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2002년 대선 당선 이후 '몽돌과 받침대론'을 들어 고 건 전 총리를 전격 기용했으나 2004년 탄핵 이후 조기개각을 위한 제청권 행사 문제를 놓고 사이가 벌어졌다.

박근혜 대표 "비통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충격적이고 비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오후 2시30분께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한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빈소가 차려진 경남 봉하마을로 내려 갔으나 현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문이 어렵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의견에 따라 이날 서울 분향소에서 애도를 표시했다.

"검찰·언론·현정부 책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에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와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씨가 찾아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배은심 씨는 "노 전 대통령님의 슬픔은 온 국민의 슬픔"이라며 "대통령님이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검찰과 언론, 현정부가 있다"면서 "너무 분해 영전에 명복이라도 빌려고 왔다"고 말하고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을 앞두고 부인 권양숙 여사가 2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눈물을 머금은 채 휠체어를 타고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신·탈진 환자 속출

○…노 전 대통령 서거 3일째인 25일 경남 김해군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조문객들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실신하거나 탈진과 두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봉하마을 일대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뙤약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렸다.

김해소방서와 진영 세영병원이 봉하마을 입구에 차린 '현장 응급의료센터'에는 이날 하루 실신하거나 탈진,두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 10여명이 치료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가 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설치한 '현장응급의료소'에도 이날 탈진하거나 두통을 호소한 조문객 50여명을 돌봤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전에서 "로무현 전 대통령이 불상사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량숙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 조전을 어떤 경로를 통해 유가족들에게 보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제2의 촛불집회 촉발할라

서울시, 서울광장 추모 행사 개방 놓고 골머리

서울광장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광장을 개방하면 제2의 촛불집회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정부 일각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사용불허 조치를 고수하면 노 전 대통령 지지세력 등의 비난이 가속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경찰 버스로 통제된 상태다.

서울시가 25일 "(서울광장 등) 장소 사용, 추가 분향소 설치는 정부 그리고 국민장 장의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라는 원론적인 견지를 내놓았다.

시가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독자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나 장의위원회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시는 강희락 경찰청장이 이날 "서울시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광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계속 할 것이다"며 경찰의 광장통제 근거를 '서울시의 광장사용 불허 방침'으로 내세우자 이런 식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다. 시가 조례 범위를 벗어나는 행사를 위해 서울광장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는 그동안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에 걸맞은 행사만 허용해 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24일 민주당의 서울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연합뉴스

盧 前대통령 부부 불교와 특별한 인연

부모님 영정 모시고 권여사 법명 받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국민적 애도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서도 불교계의 추모 분위기가 가장 눈에 띄고 있다.

불교 조계종은 23일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교구 본사 25곳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24일부터는 분향소를 절 100여 곳으로 늘려 추모객을 맞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24일 오후 봉하마을의 빈소를 직접 찾아 반야심경을 낭송하고, 권양숙 여사를 방문해 위로했다. 또 합천 해인사는 24일 주지 선각스님 등 스님 300여명을 봉하마을에 보내 애도하고 분향소 앞 공터에서 예불을 올렸다. 불교계가 이처럼 발 벗고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노 전 대통령 부부와 불교의 특별한 인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어머니가 집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염불을 하셨다"고 회고한 바 있으며 부모님의 영정도 마을 뒷산인 봉화산 정토원에 모셔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으며 틈틈이 불교경전을 탐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불교계 10대 공약으로 불교계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에도 수시로 해인사 등 절을 찾았으며 퇴임 후에도 불교계와 교류를 계속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대선 운동 시절 불교 신자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각종 불교행사에 참석했고, 2002년 10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으로부터 고(故) 육영수 여사와 같은 '대덕화(大德花)'라는 법명을 받기도 했다.

불교계는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서 남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말도 불교의 생사불이(生死不二)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